

불법복제 프로그램, 크랙 불법사용 적발 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- 풀패키지 정품가 아닌 실제 업무상 필요한 모듈 정품가, 구독료, 사용료 등 라이선스 정책 고려



1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. 7. 5. 선고 2022가단91674 판결

- (1) 저작권자 주장요지: 풀패키지 모듈 정품가 4억 주장, 6천만원 일부 청구
- (2) 법원 판결 금액: 1천5백만원
- (3) 판결이유: 사용된 모듈 정품 구매가 935만원, 복제 크랙 2 카피
- (4) 형사책임: 벌금 2백만원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4. 28. 선고 2022가합506225 판결

(1) 저작권자 주장 요지: 정품 사용료 1천6백만원, 청구금액 1천6백만원

(2) 법원 판결 금액: 6백만원

(3) 판결 이유: 정품 프로그램의 1년 구독료 550만원 고려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7. 7. 선고 2021가합571284 판결

(1) 저작권자 주장 요지: 폴패키지 정품가격 1억2천5백만원, 복제 카피 수 3개 - 3억

7천7백만원, 일부 청구금액 1억8천만원

(2) 판결 금액: 4천5백만원

(3) 판결이유: 사용 모듈 고려

4. 서울고등법원 2020. 5. 7. 선고 2020나2004872 판결

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- 복수 모듈 구성 및 실제 라이선스 사례 고려

(1) 프로그램은 다양한 구성과 기능을 갖춘 복수의 하위 모듈의 묶음으로 구성되어

있다.

- (2)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반드시 전체 모듈을 구매할 필요가 없고, 소비자의 용도에 필요한 개별 모듈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, 개별 모듈의 사용료는 각 모듈별로 책정하고 있다.
- (3) 프로그램의 판매는 구매자가 한 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그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구사용 방식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기간제 구독 방식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- (4) 피고의 업무영역상 프로그램 전체 모듈의 모든 기능이 필요하지 않고, 프로그램의 개별 모듈 구성 중 주로 신호처리 분야, 이미지 프로세싱 분야, 테스트 및 측정 분야 등의 모듈이 필요하다. 따라서 피고들은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업무에 필요한 세부적인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.
- (5) 결론 - 전체 모듈 풀패키지 프로그램 정품가 기준 손해배상액 불인정

조사자문, 형사/민사소송, 손해배상, 화해계약, 합의, 공탁 등 One-Stop 대응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